

책에는 과연 惡書가 없는가

김학수

서강대 교수 · 언론학

“책에는 惡書가 없다!” 내가 이 말을 들은 것은 우연히 몇명의 출판인들 틈에 끼여 있을 때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수긍하고, 한편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의 생활속에서 책들을 쉽게 접하게 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서부터 값싼 종지와 발달된 인쇄 기술이 만나면서 책이라는 상품이 우리곁에 성큼 다가왔던 것이다.

과거 우리 모두가 어렵던 시절에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저 현책이나 하나 가지려고 청계천 5가의 중고책 가게들을 누비던 것이 엇그제 일이고,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아예 짐보따리를 싸서 외국으로, 외국으로 떠나지 않았던가. 이 시절에 정말 책 한권을 낸다는 것은 저자나 출판인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사명감 아니면 오기 그 자체였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책은 다 귀한 책이 아닐 수 없었고, 그래서 “책에는 악서가 없다!”가 진정한 외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을 또 한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오늘의 출판문화를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책이라고 내기만 하면 다 좋다는 사고방식, 막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책이든 잘 팔아먹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출판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책에는 악서가 없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이들이 스스로의 비윤리적 행위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지극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4월은 과학의 달이고, 4월21일은 과학의 날이다. 아직도 창조적 과학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출판이 기여할 영역은 너무나 많다. 물론 그동안 과학기술관련 출판들이 그나마 이런 정도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창조적 과학문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혹시 우리의 과학기술 출판계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표절 내지 날림문화에 젖어있지 않나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책에는 惡書가 없다”는 믿음 하나로 남의 것을 허가없이 그대로 베끼는 비윤리적 출판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정확과 정밀성을 요구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정반대로 날림공사식 책으로 엮어내는 출판인들이 아직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크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우리의 출판문화를 더럽히고 있는 것의 상당한 책임은 低質의 지식인, 즉 저질의 저자들에게 있음도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저질의 저자들이 설치도록 부추기고, 심지어는 일부러 이용하고 있는 것이 또한 출판인들 아닌가. 상품화시키는 최종 책임자가 출판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책에는 惡書가 없다”가 아니라 “책에는 惡書가 많다”라는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빨리 깨우치는 일, 그것이 책의 소비자인 국민에 앞서 책의 생산자인 출판인에게 가장 먼저 부과된 과제임을 진심으로 되새겨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되새김질이 없는 한 우리의 知的 문화가 저질과 왜곡의 수렁을 빠져나올 길이 없고, 자연의 오염보다 훨씬 무서운 지적 오염이 우리사회에 영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창조적 과학문화를 어떻게 꽃피울 수 있겠는가.

표지인물	2	끊임없이 거듭나는 한국사의 '古典' 「한국사신론」 新修版 낸 李基白 교수
초점	4	대체교재, 그 의의와 한계의 공존 — 정태현
서론	6	우리가 만든 '우리 표준' 이어야 한다 — 柳京熙 컴퓨터용 한글 및 漢字코드 표준제정에 부쳐
서평	8	장희익 「과학과 메타과학」 — 李初植 안치숙 「사회주의의 미래와 과학혁명」 — 홍성욱 9 민영기 「지구에서 퀘이사까지」 — 성영곤 김세현 「컴퓨터범죄와 프라이버시侵害」 — 송상용 10 산업사회연구회 「한국자본주의와 자동차산업」 — 김진균 스미스 「세계신문의 역사」 — 정진석 11 이 환 「프랑스문학노트」 — 원윤수 이은성 「동의보감」 — 韓萬洙
연재기획	12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12 해방직후 유문문화사를 중심으로
리포트	14	서울과 東京, 그 멀기만 한 거리 추리작가 金鍾鏞의 일본서점가 漫歩記
출판화제	16	서점가에 이는 환경보호의 '녹색바람'
이 책 그 사람	18	「中国政治經濟事典」 낸 정중욱 교수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낸 황필호 교수 19 「바람부는 날은 지하철을 타고」의 시인 金鍾海씨 낙선작집 「우리시대의 운전」 낸 김선영씨 20 「그 산길, 그 여로」 낸 산악인 손경석씨 「운전기사의 임금과 세금」 낸 장경옥씨 21 「인간은 벌에 갈 수 없다」의 작가 송언씨 「삶의 노래, 사랑의 노래」 낸 가수 송시현씨
교양논단	22	여성해방문학이란 무엇인가 — 이명호
세계의 출판	24	보리스 엘친의 자서전·외
독자서평	26	안치숙/심상우/안지민/김기태 28 새로운 詩集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이색출판/화제의 책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색인 48 프리즘/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